

4학년이 되고 학교생활에 마지막을 추억하고 싶어 해외탐방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중국을 가볼 생각도 안해봤고 어떤 선입견으로 특별히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다녀와서는 많은 생각에 잠기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여러 학우들과의 좋은 기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즐겁고 가슴 뜨거웠던 일정을 올려 보겠습니다.

- 5월 21일 : 인천공항 출발, 푸둥 국제공항 도착, 문화탐방, 호텔투숙
- 5월 22일 : 가흥으로 이동, 문화탐방, 항주로 이동, 문화탐방
- 5월 23일 : 서호로 이동, 문화탐방, 상해로 이동, 문화탐방
- 5월 24일 : 문화탐방, 푸둥국제공항 이동, 인천공항 도착

▼출발하기전 들뜬 마음을 안고 다함께 한컷.



출발할 때 한국은 날씨가 좋았지만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중국의 여러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들의 특징과 상해에는 똑같은 빌딩이 없다는 것. 각양각색의 높은 건물들이 일정시간 불을 켜야 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딜시 징계가 따른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우리의 분양문화와는 다른 내부 인테리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새 건물임에도 반만 지었나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중국의 날씨는 대체로 습하고, 해가 쨍쨍한 날이 별로 없어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로 주거를 형성하지 않고 2층에 살림을 둔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찌를 듯이 뻗은 건조대에는 빨래들이 빼곡이 널려 있었답니다.



만국공묘, 예원 정원, 옛거리, 동방명주탑, 역사박물관등을 지나며 독립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옛거리에 잠시 앉아 처음으로 알리페이를 써서 음료를 사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호텔 조식을 시작으로 가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흥지역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김구 선생의 망명 생활과 독립운동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역사의 무게감과 애국지사들의 고난이 공기 중에 고스란히 맴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느낀 애국지사들의 헌신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흥지역의 모든 돌과 길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젖어 있는 듯했고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애국심의 의미를 배웠고, 역사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

니다.



가흥지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였습니다.

먼 타국에, 시대의 불안정함과 불공정함이 이곳 가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역사가 보존되고, 보존하려 한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 서호로 이동하여 유람선을 타고 항주임시정부청사를 찾았습니다. 청하방 옛거리에는 우리나라

라의 인사동처럼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얼떨결에 꽃차도 사게 되었구요. 잠시였지만 그들이 관광



2025년 5월 23일 11:03

사업에도 여러 가지 몰두한다는 점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상해지역에는 도심지 한가운데 변화한 거리 한켠에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재건축하기 직전의 건물처럼 천막이 쳐있었고 규모가 꽤 컸습니다. 시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저건 무언가 했더니



그곳이 임시정부청사였습니다.

시가지 한가운데 낙후된 건물,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남의 나라 역사, 중국인들은 그것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낡아 반 정도는 개방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리해서 보존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중국정부에 이것이 도움이 되냐고 가이드에게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별로 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기리고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을 맞지 못하고 비극적이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막막했던 시절 먼 타국에서나마 활동할 수 있었던 이곳에서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 역사의 보존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정신적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중국 역사탐방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 유적의 보존은 후세대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중국을 우호적으로 여기지 않던 저는 이번 여행으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복잡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대립해왔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상과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인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평생 추구했던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차이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24명의 학우들과 학교 관계자분들, 가이드님들과 너무 즐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서로를 배려하며 도움 주는 모습에 낯설음은 금방 사라지고,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걷는 동행길이 신이 났습니다. 여행지마다 한분씩 사라지는 마법도 있었지만 그것도 지치려는 정신을 깨우는데 한몫 했습니다. 처음 먹는 정통 중국요리가 당황스러웠고 책상에만 앉아있던 다리로 만보 이상을 걷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상해의 야경을 보며 비바람도 불사하고 유람선을 탔던 그때가 너무 정겹게 떠오릅니다. 이번 여행에 참여토록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8기 탐방팀에 애정을 보냅니다.